



## 건강체크

## 우리 집 강아지 건강 지키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심장사상충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모기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 예방하고 반려견의 행복을 수호하자.

## □ 8세 진돗개의 수난

8살 된 개 한 마리가 병원에 왔다. 체중이 18kg에 달하는 암컷 진돗개였다. 8살이면 아주 나이 든 것도 아니지만, 그 개는 아팠다.

밥맛이 없었고 우울해 보였으며 특히 숨을 쉴 때 매우 힘들어 보였다. 결정적으로 그녀석의 배엔 복수가 차 있었다.

정진기를 대보니 심장에서 잡음이 들렸다. 원래 혈액은 오른쪽 심장(우심실)에서 폐동맥을 거쳐 폐로 가고, 거기서 산소를 충전한 혈액은 왼쪽 심장(좌심실)으로 갔다가 전신으로 흐른다.

진돗개에서 들리는 잡음은 혈액이 우심실에서 폐로 가지 못하고 역류한다는 신호였다. 추가적인 검사

결과 우심실이 커져 있었는데, 이건 심장이 무리를 한 결과물이었다.

아무래도 심장과 폐동맥 사이에 어떤 방해 물이 있어서 정상적인 혈류를 방해하고 있음을 명백했다.

원래 멀쩡하던 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선 의심할 수 있는 게 심장사상충(Dirofilaria immitis) 감염이다.

## □ 심장사상충의 생활사

저 개는 어떻게 해서 심장사상충에 감염됐을까. 답은 모기에 물려서다. 암컷 모기가 개를 물 때 그 안에 있던 유충이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잠입에 성공한 유충은 개의 근육이나 지방에서 2개월간 성장한 뒤 정맥 안으로 들어간다. 정맥의 혈액은 심장으로 모이기 마련. 심장사상충은 자연스럽게 심장으로 가고 결국 폐동맥 입구에 자리를 잡는다. 심장사상충은 제법 긴 기생충으로, 암컷은 25~30cm, 수컷은 12~20cm

에 달한다.

이런 별례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다면 폐동맥의 입구가 좁아진다.

좁아진 통로로 혈액을 보내려다 보니 우심실에 과부하가 걸리고 열이 받은 심장은 더 힘을 내려고 근육을 기른다. 심장이 커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심장이 하루 종 일마리도 쉴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심장은 한순간도 쉬는 일이 없다. 심장사상충에 걸린 개에서 찾아오는 심부전은 심장이 더는 일을 못 하겠다는 항복 선언, 이 경우 치료를 한다 해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심부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심장사상충들이 작당해서 폐동맥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폐로 혈액이 거의 가지 않게 되고, 이 경우 좌심실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낼 수 없다.

그 결과는 개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도 수명이 다한 별례가 죽고 그 조각이 떨어져 나가 다른 혈관을 막는다면(이걸 색전증이라고 한다) 이 또한 개가 급사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생충이 심장으로 들어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이 경우 혈액이 우심실에서 우심방으로 역류하게 되며, 위에서 언급한 진돗개에서 잡음이 들렸던 이유는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복수가 찬 이유는 뭘까? 역류로 인해 우심방에 혈액이 꽉 차 있다면 정맥에 있는 혈액이 우심방으로 가지 못하게 되며, 그 혈액이 밖으로 빠져나가 복수가 차거나 다리가 붓는 현상이 생긴다.

## □ 심장사상충의 관리

개가 자꾸 기침을 하는데 운동할 때 심해진다면 심장사상충을 의심할 수 있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몸이 부은 채

혀를 거리며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이 전에 진단하는 게 좋다.

많은 기생충이 대변을 통해 알을 외계로 내보내기 때문에 보통 대변 검사를 시행한다.

그럼 심장에 사는 심장사상충은 어떻게 할까? 그들은 알 대신 미세사상충(microfilaria)이라는 아주 작은 유충을 낳는다. 그 유충은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 모기가 개의 혈액을 빨 때 모기의 몸으로 들어간 뒤 다른 희생자를 찾는다.

그러니 개의 혈액을 뽑아 미세사상충이 있는지 검사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암컷이나 수컷만 들어 있거나 암컷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

X레이에서 오른쪽 심장이 커졌다 면 의심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확진은 아니다. 요즘 제일 널리 쓰이는 진단법은 심장 초음파이다.

이 경우 별례가 어디 있으며 마릿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고, 치

료방침을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치료다.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게 어렵다면,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심장사상충이 기생충 중 유일하게 예방약을 써야 하는 건 이 때문이다.

먹이는 약에 반려견이 민감하다면 바르는 약도 괜찮다.

수의사들은 겨울에도 모기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1년 내내 예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효과가 1년간 지속되는 주사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다.

위에서 소개한 진돗개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

수술 결과 이 개로부터 13마리의 심장사상충이 나왔다고 한다. 수술로 고생했을 개가 앞으로 남은 생은 건강하게 살기 바란다.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한국건강관리협 소속지 빌체)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교통사고 예방은 안전띠 착용부터



김 창 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자동차의 충격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충격력을 감소시켜 치명적인 부상을 막기 위해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동작이 방지되어 올바른 운전 자세와 안정감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시야를 넓혀주고 운전 피로도 덜어주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 3월까지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 사망자가 5명 발생했는데 이들 사망자 모두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고 한다.

지난해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는 2명으로 전년 대비 150%나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2019~2021년) 사망자 26명 중 안전띠 미착용에 의한 사망자가 9명(35%)인 것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앞좌석보다 사망률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나다.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는 사고가 안 나겠지', '귀찮아서'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차량 출발 전 자신과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꼭 확인하자.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놓

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평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겠다.



선종문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장

기후 변화로 요즘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질 정도다.

우리나라도 폭염이 예보되어 있어 폭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온열질환인 일사병과 열사병의 개념 및 대처법을 알아보고 한여름을 이겨내자.

일사병은 의학적으로 정의된 명칭

은 아니지만 보통 햇빛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성 응급질환을 통칭한다. 여름철 햇빛에 장시간 노출돼 수분과 염분이 몸 속에서 빠져나가며 발생한다. 체온이 40°C 이하로 오르는 것이 특징이며 두통, 발한, 무기력증 등을 동반하지만 중증신경계의 이상은 없는 상태이다.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몸이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체온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의식변화가 생기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한다.

특히 습도가 높은 곳에 있을 경우 땀이 잘 나지 않아 열사병이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다.

열사병 또는 일사병 증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환자

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햇빛이 없는 그늘진 장소로 환자를 이동시킨 후에는 단추, 벨트 등을 풀어 옷을 느슨하게 만들고 수분을 공급하도록 한다.

염분이 있는 물이나 이온음료 등을 마시게 하는 것이 좋고, 의식이 없을 때 마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섭취를 삼가도록 한다.

또 찬물로 적신 수건이나 얼음을 찬 수건을 몸에 갖다 대어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다.

이와 함께 부채질을 하거나 찬물

을 몸에 뿌리는 것도 체온을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음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119에 전화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일사병,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규칙적으로 자주 물을 마시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인 낮 2시 전후에는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삼간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 만성질환자의 경우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흰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http://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재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준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회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화부 (062) 362-6116

인쇄처남도프린트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mamnews@hanmail.net](mailto:homamnews@hanmail.net)

[homammaeil@naver.com](mailto:homammaeil@naver.com)

## 새희망 새언론 새천년



지국안내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충 장……223-4123  
부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생 촌……371-958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암……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문 흥……261-9461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장……955-0451  
월 곡……941-9174  
송정리……010-5524-3638

지사안내

&lt;p